2007년 등급판정결과 돼지부문 우수상

밀알농장 - 이용문 농가

전북지역본부과장김창열

밀알농장(전북 남원시 주생면 소재)은 이용문 대표가 오랜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농장일을 하다가 정년퇴임 후 전업으로 양돈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4,000두(모돈 350두)의 사육규모를 가진 농장으로, 아들인 이강영 대표 또한 대도시의 직장 생활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부친의 경영철학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하며 함께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면역력 증강을 위한 봉침시술

봉침은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백신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자돈, 모돈에 시술하고 있다. 자돈은 출산 후 3일 이내에 마리 당 4군데에 1차 봉침을 놓고, 이유 시에는 6군데의 2차 봉침을 놓게 되는데 이렇게 봉침을 맞은 자돈은 장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모돈은 외음부와 항문 사이에 봉침을 놓게 되며, 그 효과는 분만을 촉진시켜주고 질 내를 깨끗하게 해줘 산도에 염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간이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단, 봉침 실시에는 양봉 등에 대한 기술습득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고 한다.

친환경적인 농장관리

밀알농장은 봉침뿐만 아니라 좋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철저한 수질관리, 청결한 사양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돈사에서 육성사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에서 참숯가루를 미세하게 분쇄해 2개월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하고 있다. 사료는 20년째 동일한 사료회사와 거래하는 등 종돈과 사료를 통일하여 균일한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방역은 외부인, 외부차량 및 사료운송차량에 대한 철저히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돈사는 일주일에 소독의 날을 정해 1, 2차로 정기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함을 유지하고 각각 쓰이는 소독제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병원균이나 바이러스의 내성을 방지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

이 대표는 양돈을 경영하는데 주변 유양시설, 저수지 등 환경문제와 민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고품질의 돈육을 생산하겠다는 경영철학과 가축이지만 하나의 생명체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